

## “광주·전남 투표율 80%를 넘겨라”

### 뉴스 초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카드가 결렬되면서 막판 대선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야권 후보단일화라는 호재에 따라 상승 곡선을 그렸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일정 정도 타격을 받지 않느냐는 관측과 함께 대선 막판까지 살얼음판 판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야권 후보단일화 결렬이 그동안 정세 양상을 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선거 막판 투표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투표율이 올라가 '이재명 바람'이 현실화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접전 양상에서 호남 표심은 두 표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민심에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위기의 시대에 호남이 미래의 문을 여는 동력이 되어 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투표율 80% 이상, 득표율 90%대를 목표로 하는 '8090'을 슬로건으로 내세운다는 입장이다.

지난 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치러진 역대 대선에서 광주·전남지역 최고 투표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5대 대선으로 광주 89.9% 전남 87.3%로 집계됐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 97.28%, 전남에서 94.61%라는 경이로운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또 '노무현 바람'이 불었던 지난 16대 대선에서는 광주 78.1%, 전남 76.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당시 노무현 당선자는 광주 95.17%, 전남 93.38%의 득표율을 나타냈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격돌했던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광주 80.4%, 전남 76.5%의 투표율에 문 후보의 득표율은 광주 91.97%, 전남 89.28%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코로나 19 대확산과 역대급 비호감 구도 등이 겹치면서 투표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잘 해야 70% 초반만 내외의 투표율이 예상된다. 여기에 호남에서의 '윤석열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상당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광주·전남 등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와 같은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인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당, 박빙 대선에 총력전  
막판 결집 '전략적 선택' 기대  
득표율 90% 목표 '8090' 슬로건  
국힘 "호남서 30%대 득표"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아직은 광주·전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60%대 후반에 그치고 있지만 선거 막판 대결집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위기의 시대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호남 민심의 집단 지성과 보수 세력의 집권은 호남을 '정치적 섬'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겹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 결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다.

민주당에선 이번 대선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70% 중반대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광주와 전남에서는 80% 이상의 투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가 달성했던 90%대의 지지율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송갑석 광주시장위원장은 "광주·전남 등 호남에서 80%대 이상의 투표율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90%대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호남에서 '이재명 바람'을 만들고 압도적 지지를 해줘야 정권재창출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호남 민심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8090' 목표에 가당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민주당이 과거 프레임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은 전국적 현상이며 호남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윤 후보가 광주·전남 등 호남에서 최소한 20%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윤석열 대선 후보의) 호남 지지를 목표치를 25%에서 다시 3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호남 민심은 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과거에 빠져 있다"며 "변화를 바라는 호남 민심은 윤석열 바람과 함께 30%대 득표율로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호남 민심의 결집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호남 민심이 이재명 후보로 막판 결집 양상을 보이지 않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등 여론에 대한 피로감과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라는 동질감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으면서 과거와 같은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결국, 막판 전체적인 민심의 흐름에 따라 호남 민심도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정신으로 미래 열어주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저녁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 정신으로 미래를 열어주세요’ 광주 집중유세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안철수 “내 갈길 가겠다”... 단일화 결렬 공식 선언

### 대선 판세 다시 요동칠 듯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13일 윤 후보에게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전격 제안한지 일주일 만에 파국을 맞은 것이다. 20대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야권 후보 단일화 카드가 무산됨에 따라 막판 대선 판세는 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안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일주

일 기다리고 지켜보았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고 단일화 제안 철회를 밝혔다. 그는 단일화 제안에 대해 “단일화 프레임에 가두려는 정치 환경과 구도를 극복해보려는 교육자적 책임,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달라는 여론의 뜻을 받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제 제안을 받은 윤 후보는 일주일도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오리려 저희 당이 겪은 불행을 틈타 상 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모리배 짓을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 열망을 담

아내고자 하는 제 진심은 상대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후보 측이)오리려 시간을 질질 끌며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뻔한 수법을 쓰고 있다”며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며 “저의 단일화 제안으로 혼란을 느끼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추경 14조 단독 처리 ... “자영업자 보상 시급”

### 오늘 본회의... 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보상이 시급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날치

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오전 2시 8분께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없었다. 예결위 회의 개최 후 정부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총 4분이 걸렸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 더해 '2조원+알파(a)'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최종 규모는 17조~1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개발공사  
JEONNAM DEVELOPMENT CORP.

## 스마일 전남, 스마트 전남개발공사

도민과 함께 행복 전남을 만드는 대표 공기업

고객  
체감

상생  
협력

시각  
중심

미래  
선도

58566 전라남도 무안군 삼함읍 후광대로 242

대표전화 061-280-0600

팩스 061-285-9859

www.jndc.co.kr